◈며느리 권씨 열전 21-4

공인(恭人) 권씨(추밀공파 27세, 권경 權璟의 딸)

전주 이언징(李彦徵,세종대왕 5子인 광평대군 11世)의 부인

天作合於二姓兮 42目(천작합어이성혜)
하늘이 맺은 두 성씨여!

가은공 이의보 작 권오철 번족

寔生民之攸始羲繇首以乾坤兮
(식생민지유시희요수이건곤혜)

1. 진실로 생명의 시작이니, 곧 복희씨가 이끄는 그것처럼, 천지의 시작, 태초의 '乾(하늘,男)'과 '坤(땅.女)'이니라. 乾道成男 坤道成女!

해설: 이 문장은 인류의 기원이 羲繇(복희,동이족)의 통치 아래에서 시작되었고, 그때 부터 天(천,하늘)과 地(지, 대지)의 기본적인 구조인 '乾(건, 창조)'과 '坤(곤, 수양)'이 나타났다는 것을 나타낸다.

葩經弁以關雎君子道其造端兮
(파경변이관휴군자도기조단혜)

2. 푸르른 풀과 식물이 엮여 관저(시경의 첫구)를 이루듯, 군자의 도(道)가 그 근본(조단)을 만들었니라. 窈窕淑女 君子好逑!

해설: 이 부분에서는 자연의 풍요로움과 서로 얽힌 푸르른 풀과 같이, 선비의 도(길)가 모든 것의 근원을 창조(남녀의 결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思聖詔未來許惟嫁娶之有道兮
(사성조미래허유가취지유도혜)

3. 숭고한 칙령을 생각하며 미래를 기약하지만, 단지 결혼에 대한 것의 올바른 도리만을 허락하느니라. 二姓之合 造端託始!

해설: 숭고한 법령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예견하지만, 그것은 결혼에 대한 올바른 도리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覽厥德焉度宜行媒灼而議婚兮
(남궐덕언도의행매작이의혼혜)

4. 그 덕성을 살펴보고 그 지위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하며, 중재인이 밝고 올바르게 결혼을 논의하여야 하느니라. 人倫大事 愼終如始!

해설: 덕행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며, 결혼을 중재하는 자가 밝고 올바르게 결혼을 논의한다는 의미이다.

重其事而以禮膺萬福而肇源兮
(중기사이이례응만복이조원혜)

5. 이 일을 중시하며 예의와 법도에 따라 해야하느니 만복을 받고져 그 처음의 근원을 창조하는 것이니라. 規行矩步 萬福興雲!

해설: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며 예의에 따라 행하면, 만복을 받아 모든 출발의 근원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備五倫而常道象天玄而地黃兮
(비오륜이상도상천현이지황혜)

6. 오륜(五常)을 갖추고 상시 도(道) 지키니 그 모습은 천지현황(하늘은 유현하고, 땅은 누르다)이다. 三綱五倫, 宇宙弘荒!

해설: 오륜를 모두 갖추어 항상 예의를 지키며, 천지의 풍경과 같이 밝고 푸른 도리를 따르라는 뜻이다.

納其幣而腆辭嗈鴈鳴於旭日兮
(납기폐이전사옹안오어욱일혜)

7. 선물(납폐)을 받아들이고 남에게 대접할 때에는 겸손한 언사로, 기러기가 새벽 태양에 햇볕을 받으며 울며 나는 장관을 보는 거와 같다. 鴻雁于飛, 人香萬里!

해설: 선물을 받고 대접받을 때에는 겸손한 태도로, 새들이 아침 태양을 받아 울 때처럼 겸손하고 순박하게 행동하라는 의미이다.

醮盃三而拜四稱丈夫曰俊秀兮
(초배삼이배사칭장부왈준수혜)

8. 세 번 잔을 올리고 네 번 절을 하며, 남성을 일컫어 귀하고 아름다운 자라 부르네. 喧喧丈夫 賢夫良婿!

해설: 술잔을 세 번 들이어 건배하고 네 번 절을 하며, 남성을 칭찬할 때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라 부르는 것을 나타낸다.

詠淑姿以窈窕乾行健而位定兮
(영숙자이요조건행건이위정혜)

9. 아름다운 모습을 찬미하며, 우아하고 세련된 행동으로 건강하게 행동하고 자리를 잘 지켜라. 秀色聰明 賢妻良母!

해설: 아름다운 모습을 찬송하며, 우아하고 세련된 행동으로 건강하게 행동하고 자리를 잘 지키도록 권하는 내용이다.

坤道柔而儀成郎其佳而婦賢兮
(곤도유이의성랑기가이부현혜)

10. 여자는 곤도(坤道,땅)이니 유(柔)하면서도 남편감이 뛰어나고, 아름다우면서도 현명한 여인이어야 한다. 柔美堪, 聰明能輔!

해설: 여성은 地(坤)의 도리처럼 부드럽게 하면서도 자리를 잘 지켜야 하며, 남편이 훌륭하고 아름다웁고 부인은 현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兩家愜於素望月老繩之芳緑兮
(양가협어소망월로승지방록혜)

11. 두 가족은 서로 기뻐하며, 월하노인(혼인의 신)의 관계처럼 아름다운 녹색의 인연을 맺는다. 月下之盟 兩家喜慶!

해설: 두 가족이 서로 기뻐하며, 월하빙인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연을 맺는다는 표현이다.

天孫橋之佳約筮家人之吉象兮
(천손교지가약서가인지길상혜)

12, 하늘의 자손인 우리들은 아름다운 약속을 맺었으며 무가가정의 예언도 길상이라 하는 것이다. 百年佳約 百年偕老!

해설: 천자성(천의 후손)의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다리처럼 놀라운 미래를 갖고, 가족은 좋은 기운과 같이 행복한 미래를 나타낸다는 의미이다.

擇一日之三合詩人詠其四喜兮
(택일일지삼합시인영기사희혜)

13. 특별한 날을 선택하여 천지가 하늘 앞에서 합하고 시인은 네 가지 기쁨을 찬미하는 것이다. 天地人合 洞房花燭!

해설: 시인이 특별한 날을 골라 네 가지 기쁨을 찬미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最華燭於洞房調瑟絃於鳳凰兮
(최화촉어동방조슬현어봉황혜)

14. 가장 화려한 촛불을 방에 켜 놓고 기야금과 해금, 금슬을 조절하면서 봉황과 같은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낸다. 一心同體 雲雨之情!

해설: 최고의 화려한 불을 밝히며, 음악을 연주하면서 불사조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만든다는 의미다.

燦繩枕於鴛鴦籠雲母於盡屛兮
(찬승침어원앙롱운모어진병혜)

15. 눈부시게 빛나는 침상은 원앙새와 구름 모양의 무늬로 가득 채워져 있다. 陰陽交歡 風雨雷霆!

해설: 화려한 장식끈을 사용하여 오리 새 두마리가 함께하는 이불을 만들고, 각을 아름답게 꾸며넣는다는 의미이다.

藝芙蓉而薰香一太極而生生兮
(예부용이훈향일태극이생생혜)

16.예술적인 부용꽃은 향기를 풍기고, 하나의 태극을 형성하여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것이다. 陰陽合道, 太極生融!

해설: 예술적인 꽃을 피우며 향기를 풍기고, 하나의 태극을 형성하여 생동감 있게 만든다는 의미다.

育萬物於胚胎人最靈而且貴兮
(육만물어배태인최령이차귀혜)

17. 모든 생명을 배아와 태아에서 키우며, 인간은 가장 신령한 존재이고 최고로 귀하다. 萬物之中 唯人最貴!

해설: 모든 생명을 배아와 태아에서 키우며, 인간은 가장 영리하고 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矧夫婦之婚媾迎甭相而命誡兮
(신부부지혼구영용상이명계혜)

18. 더군다나 부부의 혼인으로 인한 결합은 서로 맞이하며 존중하라는, 운명의 계율이다. 相敬如賓 萬福根源!

해설: 특히 부부의 결혼은 서로를 맞이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운명의 교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責亦重於繼序指所天而仰望兮
(책역중어계서지소천이앙망혜)

19. 책임은 계속해서 자손에게 전해지며, 하늘을 앙망하며 올려다본다. 子孫萬代 永世不朽!

해설: 책임은 계속해서 자손에게 전해지며, 하늘을 가리키며 올려다보는 것을 나타낸다.

義所大於從夫倫之始而乃網兮
(의소대어종부윤지시이내망혜)

20. 의리는 남편의 본분을 초월하여 인간관계의 시작이 되어 그물로 얽혀있다. 人倫之始 天網不漏!

해설: 의리는 남편에 대한 본분을 초월해 인간관계의 시작이 되어 얽혀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寔吾人之通誼迨春氷之未泮兮
(식오인지통의태춘빙지미반혜)

21. 진실로 우리의 인연은 봄에 얼음이 녹을 때까지 계속된다. 佳緣不變 百世流傳!

해설: 우리의 인연은 봄에 얼음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즉 삶이 다할 때 까지 계속된다는 표현이다.

筮歸妹而于歸紛結悅而佩訓兮
(서귀매이우귀분결열이패훈혜)

22. 뇌택귀매라! 여우비 내리니 누이가 시집가듯이, 환한 미소로 즐겁게 바람과 같이 어울리며, 지혜로운 가르침을 품는다. 雷澤歸妹 跛能履吉!

해설: 음식을 주고 여동생을 구한다는 풍자적 표현으로, 환한 미소로 즐겁게 어울리며 지혜로운 가르침을 함께 나눈다는 것을 나타낸다.

承夫子而無違三從義之大倫兮(승부자이무위삼종의지대윤혜)

23. 큰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거스리지 않으며, 삼종지도의 의리에 따른 큰 윤리를 지키라. 男帥女從 陰先陽後!

해설: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거스리지 않으면서, 삼종의 의리에 따라 큰 윤리를 지킨다는 내용이다.

(다음호에 계속)

글 권오철 기자

세상에서 제일 값진 상속재산(최종분)

권오형
경영학박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우리들 모두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고, 자신들보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남겨 주려고 한다.

상속이란 이와 같이 부모 등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모 등의 재산을 계승하는 제도를 말하며, 상속에 의하여 승계하게 되는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한다.

부모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이 되며,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만이 상속재산이 된다.

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으로 구분된다.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상속인(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여 말한다.

간주상속재산이란 사망인(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금, 사망인이 신탁한 신탁재산, 사망인이 받게 되는 퇴직금 등(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등을 포함)을 말한다.

추정상속재산이란 사망인이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또는 2년 이내에 처분 또는 인출한 재산이나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채무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말한다.

상속재산을 자녀들에게 분배하는 방법에는 유언에 의한 방법과 민법상의 규정에 의한 2가지 방법이 있다.

유언은 만 17세 이상 의사능력이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으며, 현행 민법상 인정되는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이 있다.

사망인이 유언이 없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민법상 법정상속에 의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며, 그 비율은 자녀수에 따라 각각 1, 그리고 배우자는 1.5의 상속지분의 권리를 갖게 된다.

유언장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배되지만, 사망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쳐 어느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주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기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하여 유류분제도가 있다 .

지난 40여년 동안 필자는 상속세에 관한 consulting을 하면서 많은 갈등과 연민을 느꼈다.

상속재산이 있는 가정마다 부모와 자식 간, 형제 상호 간의 불화와 반목은 반드시 있었다. 차라리 재산이 없었더라면 가정의 화목은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다.

우리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어서, 가족, 형제간의 끈끈한 정을 말하고는 있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에는 돈이 피보다 더 진하다는 말이 모든 과정을 지배하고 있었다.

상속재산은 토지(땅), 건물(apt 등), 현금, 예금, 주식과 채권, 회원권, 각종 권리, 신탁재산, 보험금, 퇴직금, 귀금속 등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러나 국세청 전산망의 완비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은익, 누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상속재산이 5억(또는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이 없지만, 상속재산에는 10%~ 50% 5단계 초과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재산의 분배 시 자녀들은 상속받은 후에 값이 더 오를 재산을 더 가지려고 서로 싸우고, 과거에 누가 더 사전증여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이전투구식 다툼을 하는 것을 수없이 보았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투지 않고, 누구에게나 합리적이며, 상속세도 없는 상속재산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상속재산 중 자녀들 간에 다툼이 전혀 없고, 자녀들의 능력에 맞게 나누어 줄 수 있으며, 세금도 전혀 없는 상속재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돈으로 환산이 되는 재산이 아니고, 무형의 재산인 "고기 잡는 법"을 자녀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자식들에게 고기를 나누어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말이 바로 이런 연유에서 생긴 것이다.

고기 잡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모들은 반드시 시간을 투자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고, "미운 일곱 살"이란 말도 있다. 자녀들에 대한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특히 성공한 아버지들은 너무나 바빠서 자녀들에 대한 시간을 거의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성공한 어떤 아버지는 유치원 때 아들을 본 후에 아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에야 (본인이 퇴직한 후) 만나게 되어 처음에는 누군지를 몰랐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자녀들에게 용돈만 주고 시간을 내주지 않는 것은 곡식에 비료만 주고,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 것과 같다.

자녀들 간에 다툼도 없고, 세금도 없이,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상속재산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시간을 내어 직접 가르쳐 주는 "고기 잡는 법"이 가장 좋은 상속재산이다.

고기 잡는 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꼭 소개하고 싶은 것이 3가지가 있다.

첫째 필요한 사람이 되게 가르쳐야 한다. 어떤 경우에든지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직접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벌어놓은 돈이 스스로 돈을 벌어오게 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게 가르쳐야 한다.

세 번째로는 감사 인사를 생활화해야 한다. "미안한다. 감사한다. 고맙다"라는 말을 생활화하도록 어릴 적 밥상머리에서 가르쳐야 한다.

치유

권용만 교수

앞에서 질병 편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생명의 실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살았다, 죽었다라는 말은 익숙한 말이다. 살아있다는 말은 생명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생명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은 움직임이 있다는 말이다. 이 움직임이란 단순히 앉고, 일어서고, 걷고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동작은 마음의 움직임이지 생명의 움직임이 아니다. 생명의 움직임은 돌고 있는 것이다.

생명의 움직임은 회전 즉, 돌고 있는 것이다

원자에서 우주까지 돌지 않는 것은 없다. 즉, 우주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회전이 반복될 때 이를 순환이라 한다. 생명은 순환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의 순환운동은 무엇과도 관련하지 않고 생명 스스로 혹은 저절로 지속하고 있다.

사람에게 적용시켜 보자. 사람의 몸속에는 혈과 기와 신이 스스로 끊임없이 회전하고 있다. 선인들은 이를 정(精), 기(氣), 신(神)이라고 했다. 정(血)은 입으로 들어오고, 기는 코로 들어오고, 신은 생각을 통해 들어와 순환하며 생명을 존속하고 있다. 우주(宇宙)란 글자 그대로 무한대의 생명의 집이며, 육체는 '나'라는 생명의 집인 것이다. 집의 방문이나 창문, 현관 등이 고장이 나서 출입할 수 없다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무척이나 불편할 것이다. 이처럼 몸 안의 기, 혈, 신의 흐름이 방해받는 것이 바로 '병'이다. 이미 밝힌 것처럼 기, 혈, 신의 순환장애의 원인은 기온과 마음이다.

기온의 변화가 아주 심한 환경에서 살거나, 과식하거나 과도히 마음이 불편할 경우 정·기·신의 입자(알갱이)와 몸의 70%를 차지하는 수분의 입자는 급박, 울체, 경결된다. 급박은 당황하는 것이고, 울체는 제 갈 길로 못 가고 한데 뭉쳐 끈적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며 경결은 굳어져 버리는 것이다.

대부분의 병명에는 염(炎)자가 붙어있다. 염(炎)자가 붙어 있지 않아도 실제로는 염증이다. 급박이 울체가 되고 울체된 곳에 염증이 생긴다. 흐르지 못하여 썩는 것이다. 굳어버린 경결은 암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 또한 염증이다. 정·기·신의 순환장애가 곧 병인 것이다. 그 결과 의사들이 붙인 병명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실체는 대부분 염증으로 나타나며, 또한 비만, 탐식, 우울증, 아토피… 등도 모두 순환장애의 결과이다.

순환이 잘 되질 않으면 몸은 차가워진다. 차가우면 굳어지고, 굳어지면 썩는다. 썩음의 결과는 죽음이다. 인체는 찬바람, 과식 등 외부의 요인으로 순환장애가 일어나 차가워지기도 하지만, 외부로 기운을 빼앗겨 장부(臟腑)가 힘을 잃는 내부의 요인으로 몸이 차서 순환장애가 되기도 한다. 또한 내인(內因)이 외인(外因)을, 외인(外因)이 내인(內因)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 차가움의 기준은 무엇일까?

인체는 36.5도의 열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기준이다. 생명체들은 각각의 생명유지 온도를 가지고 있다. 식물이 봄에 잎을 내거나 개구리나 곰이 겨울잠을 자는 것은 자기의 생명유지 온도를 찾아가는 것이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열은 에너지 즉 기운이며 힘이다. 기운(氣運)이 없으면 죽는다. 인체는 어떻게 36.5도의 열을 항상 유지하고 있을까?

핸드폰의 배터리가 다하면 작동되지 않는다. 즉 핸드폰이 죽는다. 사람은 태어날 때 생명에너지 즉, 배터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를 가리켜 선조들은 선천지기(先天之氣)라 했다. 이 선천지기의 배터리는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 쓰기에 따라 그 수명이 길고 짧을 수가 있다. 36.5도로는 나의 배터리가 아직 남아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는 이 배터리를 아껴서 써야 한다.

인생의 비밀을 깨닫고 나를 완성시킬 때까지…

옛사람들 중에는 천 년을 사신 분도 적지 않은데, 왜? 현대인들은 고작 100년을 살지 못할까? 인체의 배터리가 왜 그리 빨리 소모되는지를 알아보자. 이와 더불어 충전하는 방법도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냉장고, 에어컨, 찬 음료 등 차가운 문화가 몸을 차게 만들어 순환장애를 일으킨다. 몸이 차가워지면 선천지기 배터리는 몸을 데우려고 즉 36.5도를 유지하려고 에너지를 계속해서 소모해야 한다.

둘째 과로나 격한 운동에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한다. 몸을 보기만 좋게 만들려고 헬스나 에어로빅, 보디빌딩 등 심한 운동은 겉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에너지를 외부로 너무 많이 방전시켜 몸속의 장부가 차가워진다.

셋째 욕심, 조급함, 분노, 미움 등의 정서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방치하면 몸 전체에 순환장애를 일으켜 건강에 치명적이 된다. 몸과 마음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이 배터리는 계속하여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이상의 언급이 몸을 차가워지게 하고 순환장애 즉, 병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이유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내 몸 안에 담(痰), 염(炎), 적(積)이 쌓이고 가속적으로 순환장애를 일으켜 더 많은 불순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즉 썩어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순물들을 모두 제거하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순환이 잘 되게 하는 방법, 이른바 재충전은 무엇일까?

그 답은 아주 단순하고도 쉽다. 빛은 마음이 썩는 것을 막고, 소금은 몸이 썩는 것을 막는다. 빛은 곧 열(熱)이다. 따뜻한 물에 체액에 맞추어 순수한 소금을 타서 수시로 마시면 몸 안의 불순물이 모두 제거되고, 따뜻한 기운이 굳은 곳을 정.기.신의 통로를 자연스럽게 열어주면서 굳고 뭉친 곳을 풀어주어 원활한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다. 나 자신 즉, 내 몸과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는 외부를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이다.